

춘천 불교방송 허가 추천

방송위, 정통부에...내년 10월 개국 "강원포교 청신호"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던 춘천 불교방송 설립이 내년 10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전망이다.

춘천 불교방송 개국으로 지난 90년 5월1일 개국한 불교방송은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등과 함께 모두 5개 지방국을 갖춘 전국방송으로 거듭나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춘천불교방송 개설을 허가하고 주파수 결정 등 설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정보통신

신부에 공식 의뢰했다. 이번에 허가 결정을 내린 방송위원회는 "불교방송이 지난 4월10일 접수한 춘천불교방송 설립 허가 추천 의뢰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종교간의 형평성을 감안, 심사에 참여한 방송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허가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은 이달안으로 춘천 불교방송의 허가 서류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신청서류에 추가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빠른날 9월쯤 정식 개국허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내년 설립되는 춘천 불교방송국은 FM 방식으로 송출되며 송신소는 춘천시 동면 느라재에 세워진다.

이번 허가 결정에 따라 평소 춘천 불교방송국 설립 준비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도후 스님(불교방송이사장, 심원사 주지)과 춘천 석왕사를 비롯한 춘천지역 사찰들이 연례해 '춘천불교방송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을 내보내는 실질적인 개국까지는 방송장비 수주, 연주소공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춘천 불교방송이 세워지더라도 가청권이 화천과 홍천 등 영서 지역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폭넓은 강원지역의 포교를 위해서는 향후 영동지역의 중계소 건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5년 11월 기준으로 강원권의 불교인구 비율이 50.7%로 이웃 종교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강원권 포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분단의 현실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 북부지역에서 국공포교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군포교의 약진도 기대할 전망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사회복지사 중 불자 13%

7865명 조사...기독교 44% 천주교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가운데 불자는 13.2%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용일)가 최근 발행한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사응답자 7,865명 중 불자는 13.2%인 1,0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 응답자 중 7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기독교가 44.3%, 무교 23.4%, 천주교 16.9%, 기타가 22%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에 따른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기독교가 52.9%, 무교가 18.9%, 천주교 17.8%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강원지역에서는 기독교 51.5%, 무교 19.4%, 천주교 18.3%, 불교 10.1%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에서는 기독교 43.2%, 무교 24.7%, 천주교 16.3% 순이며 경상도 지역은 무교 30.6%, 불교 21.5%, 천주교 16.2% 순이다. 전라 제주지역의 경우 기독교 46.6%, 무교 22.4%, 천주교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분석하면 경상도 지역은 무교나 불교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종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층일 수록 불교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경 기자 jrkim@buddhania.com



○도난당한 경주 백률사 후불탱화.

폭우 틈탄 탕화도둑 조심

경주 백률사 대웅전 2점 도난

비 오는 새벽을 틈타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해 장마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긴 가을 끝에 단비가 내렸던 19일 새벽 2시경 불국사 말사인 경주시 동천동 백률사 대웅전에 봉안된 후불탱화 2점이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탕화는 관음보살도와 지장보살도로 둘 다 1900년에 조성됐다. 비지정문화재지만 조계종 문화부가 실시한 불국사 본말사 성보문화재 조사시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 강신태 반장은 "빗소리에 인공적이 감춰지는 점을 이용해 대웅전 좌측출입구의 열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점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99년 편년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을 범행일자로 택하는 경우가 많아 장마철을 앞두고 사찰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산악인련도 탄원서

군법당 불사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기소된 김태복 육군 소장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및 총동문회, 조계종 전국신도회와 이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도 지난 15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재판과 함께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불교산악인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번 일로 김 장군은 물론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소적새마을 후원금 '절반'

신도회 방문 줄고 청소년봉사 늘어

최근 6개월간 소적새마을을 다녀간 방문자 가운데 청소년 등 일반 자원봉사자의 수는 증가한 반면, 사찰 신도의 방문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자원봉사 계층의 변화로 인해 소적새마을의 후원금 수입은 예년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불자들의 후원금이 절실하다.

몇 년전 소적새마을 법당의 후원금 수입은 매달 100만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분기당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전체의 65~70% 정도로 늘어났으나 주로 내선관리 차원의 일회성 자원봉사여서 '현세' 봉사자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교과서 개편 마무리 단계

전국교법사단(단장 박영동)이 내년부터 사용될 중·고교 불교교과서 개편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국교법사단장 박영동 법사는 "현재 불교교육연합회 교과서 편찬 소위원회에서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이다"며 "오는 8월말 교육부에 개편안을 제출하면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종교교과서 개편은 교육부의 종합학교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것. 이번 개편안은 중학교과정의 경우 그동안 학년별로 별도(3권인 종교(불교) 교과서를 한권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인간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관이 신설됐다.

김종근 기자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과 회원 1백여명은 18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내에서 인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줄것을 촉구했다.

"북난민 지원 간첩이라니..."

중국측 활동가 4명 재산압류-구금-추방

좋은벗, 재수사 촉구

교계의 북한난민 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이(이사장 법륜스님)의 활동가 4명이 중국 현지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김립성 국가안전청에 50일간 불법구금된 뒤 가족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또 북한당기금 1천만원과 자동차, 컴퓨터 등 단체와 활동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8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좋은벗들은 18일 프레젠테이션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정부는 이 사건을 신속히 재수사하여 좋은벗들 활동가들에게 씌운 간첩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압류한 재산을 반환하라 요구했다.

법륜스님은 항의서한을 통해 "중국길림성 안전청이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하여 장기구금하고 알몸수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좋은벗들의 활동가들이 중국내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7년부터 자원활동가를 중국 현지로 파견하여 북한난민을 돕고, 난민규모와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준 온

벗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단체중 북한난민돕기분야의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좋은벗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거리행진을 한뒤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국가주석 앞으로 보내는 법륜스님 명의의 항의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법륜스님은 항의서한을 통해 "중국길림성 안전청이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하여 장기구금하고 알몸수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좋은벗들의 활동가들이 중국내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우기자 wkim@buddhania.com

불교NGO 공모사업

조계종, 4천만원 지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은 지난 12일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불교NGO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업규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불교NGO 활동의 전문성과 영역의 다양화를 통한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모사업의 접수를 받는 조계종은 1개 단체 1개 공모사업의 원칙으로 4,000여만원의 예산을 공모사업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배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02)735-5864 김재경 기자

"가야산 도로 노선변경"

합천주민 건교부에 탄원

합천 해인사 대중스님과 가야-성기 구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가 지원 지방도로 제59호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 상임대표)과 오정길 국장(불교환경교육원)은 18일 건설교통부 오장섭장관을 만나 "해인사 대중스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가야산을 환경훼손하는 도로개설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장섭장관은 "충분히 납득한다"며 "해인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남도와 협의,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 450x450m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배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것은 잊지마십시오.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4-3733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덕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역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